

신임부장 및 신규직원의 인사말

# 신임부장이 **본** 환/경/안/전/원



**권 성 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환경안전원 교육연구부장

2008년 여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메일을 열어보니 환경안전원 신임부장을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가 있었고 거절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이메일 답장을 보냄으로써 환경안전원 신임 교육연구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임 부장이 본 환경안전원’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달라는 또다른 이메일을 부임한 지 8개월만에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마감일을 앞둔 비오는 봄날 연구실에 앉아 환경안전원이라는 다섯 글자를 되새기니, 우선 본인이 대학원 시절 환경안전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 시절과 세월이 흘러 환경안전원 부장이 되어 대학원생을 교육시키는 교육연구부장이 되었을 때 바라보는 환경안전원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는 실험을 해야 하는데 환경안전원에서 하루종일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억지로 와서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는 반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환경안전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니 참으로 격세지감이 듭니다.

그러나 대학원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환경안전원의 이미지는 환경안전원은 마치 자명종 같다는 것입니다. 자명종은 주로 아침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단잠 중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자명종 소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에 곤히 자다가 자명종 소리에 놀라서 기상하게 되고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잠을 깨야 하니 마음이 유쾌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수하고 식사를 하고 직장에 나가 예정된 일과를 보내게 되면 아침에 자명종 소리에 억지로 일어난 일을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만약 자명종이 없이 자고 싶은 만큼 잔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990년 봄에 군에 가기 전에 자명종 없이 아침에 일어난 시절이 있었는데 점점 기상시간이 늦어져서 나중에는 오전 11시가 다 되어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곤 군에 간 바로 다음 날부터는 기상나팔에 새벽에 기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환경안전원은 대학원생들에게는 일반인의 자명종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안전원에서 배운대로 따르면서 실험을 하는 것을 분명 불편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편안한 슬리퍼대신 발톱이 가려진 답답한 신발을 신고, 안전장갑을 끼고,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 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동안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했던 것을 절대 후회하지는 않게 됩니다. 마치 예정된 일과를 보내는 오후에, 아침에 자명종 소리에 억지로 일어난 일을 탓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환경안전원은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부장님들의 환경안전원에 대한 애착과 환경안전원 직원들의 업무추진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지요. 신임부장조차 보조를 맞추기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환경안전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환경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다방면의 분야를 여전히 선도할 것이며 대학 이외의 국가 기관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먼 훗날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부장이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